세계문화유산
통도사 기념메달
마하몰
www.mahamall.co.kr
에서 만나세요

현대불교

구독 · 후원 상담
02-2004-8212
ARS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545호 HYUNBULNEWS.COM 2025년 9월 3일(음력 7월 12일) 수요일 / 불기 2569년

“종책 연속성 필요해” 태고종 원장 연임 추진

중앙종회 ‘1회 4년 연임’ 개헌
종무원장회의서 개정안 공유해
참석 종무원장 만장일치 지지
단임제, 장기 사업 추진 어려움
오는 9월 25일 중앙종회서 논의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태고종 중앙종회(의장 시각 스님)가 현재 4년 단임제인 태고종 총무원장의 임기를 ‘1회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는 종헌 개정을 추진한다. 단임제로 개헌이 이뤄진 후 14년만에 다시 임기 개헌이 추진되는 것이다.

태고종(총무원장 상진 스님)은 8월 26일 서울 한국불교전통문화전승관 1층 회의실에서 ‘2025년 전국종무원장 회의’를 열고 중앙종회에 제출할 종헌·종법 개정안과 하반기 종단 주요 행사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태고종 중앙종회가 총무원장 연임과 관련한 종헌 개정안에 대한 보고를 진행해 눈길을 끌었다. 추진되는 개헌안은 총무원장의 임기를 현행 4년 단임제에서 ‘1회 한정 4년 연임제’로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개정된 종헌은 즉시 준용되도록 했다.

태고종이 총무원장 임기를 4년 단임제로 채택한 것은 2011년. 종단에 수십억 원의 부채를 안겼다는 혐의로 전 총무원장 운산 스님이 멸빈 징계를 받자 당시 중앙종회는 제106회 회의에서 총무원장 임기를 4년 단임제로 개헌했다. 총무원장의 장기 집권과 전횡을 막겠다는 게 이유였다.

이후 4년 단임제는 총무원장의 권력을 분산하며 종단 운영의 투명성과 민주화를 확보하는 데에 일정 부분 기여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도 그 한계도 여실히 드러났다. 대표적인 것이 장기적인 어젠다가 수반돼야 하는 종책과 종단 사업들의 부재다. 이 같은 사업들은 4년이라는 임기에 이루기에는 힘들고, 후임 원장의 종책으로 이어지지 않아 단절되기 일쑤였다.

특히 상진 스님이 제28대 총무원장으로 취임하며 종단 위상이 빠르게 회복되면서 연임제로 전환이 종단 내에서 논의되기 시작했다. 상진 스님이 추진 중인 여러 종책과 대내외 사업들이 연속·지속성을 가지려면 단임제로는 한계가 명확해서다. 입법부인 중앙종회가 직접 나서서 개헌을 추진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태고종 중앙종회 사무처는 “현행 4년 단임제는 2·3년차에 레임덕 등으로 주요 종책사업의 연속성이 담보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대정부·대사회·이웃종단 교류 심화와 지속성을 위해서도 4년 단임제보다는 1회 한정 4년 연임제로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개헌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논란이 될 수 있는 현직 총무원장 준용에 대해서는 “2011년 개헌 때도 즉시 준용돼 당시 총무원장이었던 인공 스님이 차기 선거에 출마하지 못했다. 개정 형평성을 감안할 때 현 총무원장부터 개헌을 준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중앙종회의장 시각 스님은 “이번 총무원장 임기 개헌안은 수석부의장 법륜 스님을 비롯한 2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를 할 예정”이라며 “오늘(8월 26일) 열린 의장단 및 상임분과위원장 연석회의에서도 전원이 1회 한정 4년 연임제로의 개헌안을 찬성했다”고 종헌 개정의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총무원장의 임기를 ‘1회 한정 4년 연임’으로 전환하는 종헌 개정안에 대한 공감대는 종단 내부적으로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정원 25명 중 16명이 참석해 개최한 이날 전국종무원장회의에서도 전국종무원장협의회장 지허 스님의 제안에 따라 참석 종무원장 전원이 만장일치로 개헌에 지지 의사를 밝혔다.

한편 전국종무원장회의에서 의견수렴과 참석자 전원 만장일치 개헌 지지 결의를 거친 총무원장 임기 개헌안은 원로회의와 종정 스님의 승인을 거쳐 오는 9월 25일 열리는 중앙종회에 상정·논의될 예정이다. 종헌 개정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이뤄진다.



총성 잦아든 뽀디봉, 아이들 미소 ‘활짝’ 지난 7월 24일 시작된 태국과 캄보디아 국경 분쟁으로 닷새 만에 100여 명이 사람이 목숨을 잃었고, 수십만 명이 피난길에 올랐다. 한국 재가불자 비영리단체 ‘자비를 나르는 수레꾼(이하 수레꾼)’이 16년 동안 후원해온 캄보디아 뽀디봉 마을도 마찬가지였다. 분쟁 직후 주민의 80%가 마음을 졸이며 피난길에 올랐다. 7월 28일 휴전이 성립되며 총성이 잦아들자 뽀디봉에는 평화가 찾아왔다. 수레꾼이 설립한 학교로 돌아온 아이들의 웃음이 해맑다.
글=신중일 기자 · 사진=자비를 나르는 수레꾼 〈오시환 대표 특별기고 12면〉

조계종 9월 중앙종회 ‘출가 장려’ 다룬다

조계종 중앙종회 임시회
9월 10일 봉은사서 개최
청년 출가 장려 등 논의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주경 스님)가 제235회 임시회를 9월 10일부터 5일간 서울 봉은사에서 개최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지난 3월 경북 산불과 6월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화재로 종회가 잇따라 조기 폐회되면서 이월된 안건들이 다뤄질 전망이다. 의안 접수 기한은 9월 3일, 종책질의 접수 기한은 9월 5일까지다.

이번 임시회에서 주목할 부분은 출가 장려 관련 이월 법안이다.

청소년·은퇴출가 제도 개선

출가장려를위한특별위원회(이하 출가장려특위)가 제출한 ‘청소년출가·단기출가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동국대 불교대학 졸업자의 행자교육 면제와 단기출가자의 단기출가 기간을 행자교육기간으로 인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불교에 관심을 가진 이들이 출가 과정에 부담을 느끼고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고, 청년층을 출가로 적극 유도하기 위한 취지다.

이와 함께 ‘은퇴출가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도 다뤄질 예정이다. 현행 종법에 따르면 은퇴출가자는 사찰 승가대학 4년 과정을 이수하더라도 수계까지 1년의 공백이 발생한다. 때문에 사찰 승가대학을 졸업한 은퇴출가자에게 비구·비구니계 수계 자격을 부여해 현행 제도의 공백을 해소하자는 의미다.

그간 출가장려특위는 “매년 동국대 불교대학에 일반 학생 50명이 입학한다. 그 가운데 출가로 이어지는 경우는 1~2명으로 극히 적다”며 “4년간 불교를 배우고 익힌 인재들을 출가로 유인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아왔다. 앞서 7월 29일에도 제5차 회의를 열고 그동안 성안한 개정안이 9월 종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기로 했다.

중창주 인정 범위 확대

‘사찰법 개정안’도 눈길을 끈다. 개정안의 골자는 쇠락하고 피폐한 공찰을 맡아 사격과 위상을 크게 높인 경우 해당 주지를 ‘중창주’로 인정하는 내용이다. 종헌개정및종법제개정특별위원회(이하 종헌특위)는 “공찰 주지가 원력을 세워 사찰을 중창 수준으로 일신하고 발전시켰을 때 그 공로가 충분히 인정돼야 한다”며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종헌특위에 따르면 그간 일부 주지 스님들은 쇠락한 공찰을 맡아 사격을 일신하고도 그 공로를 인정받지 못했고, 이로 인해 임기 중 사설 사암을 창건해 이탈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또 주지 교체 과정에서 사찰의 위상이 급격히 하락하는 문제도 발생해 왔다. 이번 ‘사찰법 개정안’은 창건주 지위를 제도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사찰의 안정적 발전과 지역사회 위상을 도모하자는 데 의미를 두고 있다.

이 밖에도 선거법, 산중총회법, 중앙종회법, 교무금납부법, 선학원 정상화 특별법, 총림법, 교육법 개정안 등이 함께 논의될 예정이다.

“종단 안정 위한 공감 과정”

중앙종회의장 주경 스님은 “3월과 6월 종회가 국가 비상사태와 총무원 화재로 정상 운영되지 못했다”며 “화재 복구를 위한 비상 예산 승인은 물론 10건이 넘는 종법안이 쌓여 있다. 결산과 기본 업무 마무리를 위해 9월 종회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종회 내부에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는 만큼, 종단 안정을 위해 이번 종회를 통한 대중 공감과 공유의 과정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내영 기자

조계종 직능대표 보궐선거 10월 15일

9월 22~24일 후보자 등록

조계종 제18대 중앙종회의원 직능대표 선원 분야 보궐선거가 10월 15일에 열린다.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태성 스님, 이하 중앙선관위)는 8월 28일 서울 룸비니 빌딩 5층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회의실에서 제420차 회의를 열고 선원 분야 직능직 1석에 대한 보궐선거 일정을 확정했다. 이번 보궐선거는 성웅 스님(총무원 총무부장 임명)의 사직에 따른 후임 선출이다.

후보자 등록기간은 9월 22일 오전 10시부터 9월 24일 오후 5시까지다. 승랍 15년 이상, 연령 35세 이상의 종단 재적승으로, 선거법 제16조에 의거 피선거권 자격에 하자가 없으면 출마할 수 있다. 겸직할 수 없는 직에 해당하는 종무원이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할 때는 9월 21일까지 해당 종무직을 사직해야 한다.

후보자 자격심사는 9월 30일에 열리며, 직능대표선출위원회 회의는 10월 15일 서울 조계사 템플스테이관 3층 담소에서 개최된다.

김내영 기자



동국대학교 dongguk university

학문 간 경계를 넘어선 융합교육으로
글로벌 리더를 양성하는
동국대학교

동국대학교는 혁신적 상상력으로 미래사회를 선도할 인재를 육성합니다.

혁신과 상상이 즐거운 대학
경계를 허물고 함께 성장하는 대학
디지털 전환 시대를 선도하는 대학

2026학년도 수시모집 2025.09.10.(수) 10:00 ~ 09.12.(금) 17:00